

자본주의의 《시장질서기능》을 합리화하는 《진화론적 신자유주의》경제리론과 그 반동성

정 광 수

현대부르조아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케인즈의 《조절적자본주의론》에 기초한 《개입주의》적인 경제정책의 결과 1974—1975년 세계경제공황과 같은 경제위기를 겪게 되자 그 원인이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간섭》에 있다고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의 변종인 현대부르조아 《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한 류파로 출현하였다.

현대부르조아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은 생물학적진화론을 경제현상에 적용하여 사회발전과정의 합법칙성을 외곡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설교하고 사회주의를 비방증상하며 그 무슨 《개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간섭의 결과 초래된 사회경제적위기를 해결할수 있는듯이 주장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의 대표자인 오스트리아의 반동적인 경제학자인 하이예크(1899년—1992년)는 《개인의 자유》, 자유방임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와 같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면서 사회주의는 물론이고 국가의 적극적인 경제개입을 지지하는 《복지국가》도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제도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는 반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자유방임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순수 리론경제학을 주장하였으며 오스트리아학파를 대표하여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현대부르조아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을 내놓았다.

현대부르조아 《진화론적신자유주의》경제리론에서 대표적인것은 《자생적질서》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시장질서기능》을 합리화하는 설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과 막대한 사회적로동의 랑비, 경제의 주기적인 침체와 파탄이 피할수 없는 현상으로 되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06페이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착취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가 짓밟히고 그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있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진화론적신자유주의론》자들은 자본주의사회의 착취적본질과 파국적위기를 가리우고 자본주의제도의 《영원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비과학적인 개념을 조작하였다.

하이예크는 우선 사회도 하나의 질서라고 보고 《인조된 질서》와 《자생적질서》라는 개념을 주장하였다.

하이예크에 의하면 《인조된 질서》란 특정한 인간 혹은 집단이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설계하여 인위적으로 만든 질서이고 《자생적질서》란 진화를 통하여 저절로 형성된 질서라는것이다.

질서를 두가지로 구분한 그는 사회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인간

이 설계한 《인조된 질서》와 진화의 결과로 형성된 《자생적질서》로 나누어지는데 자본주의사회와 그에 고유한 시장경제는 룰리와 언어 등과 같이 《자생적질서》에 속하므로 안정하고 영원하지만 사회주의사회와 그에 고유한 계획경제는 《인조된 질서》에 속하므로 불안정하고 영원할수 없다고 하였다.

하이에크가 말한것처럼 사회주의는 그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생겨난 사회인것이 아니라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투쟁에 의하여 세워진 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착취계급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압박과 경제적착취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자기들이 국가정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새 사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하이에크는 《자생적질서》는 진화의 결과로 저절로 형성된것이므로 만든 사람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목적이 있는것도 아니며 사람들이 그 작용원리를 리해할수도 없는 특징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조된 질서》는 잘못된 《설계주의적합리주의》의 산물로서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쉽기때문에 《자생적질서》는 좋고 《인조된 질서》는 나쁘다고 설교하였다.

하이에크는 또한 법도 하나의 질서로 보고 사회를 구분한 방법으로 《자생적질서》에 속하는 법을 《자유의 법》, 《인조된 질서》에 속하는 법을 《제정된 법》 또는 《정부의 법》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정부의 법》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자생적질서》에 기초한 《자유의 법》의 수호를 주장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법이 국회의 립법과정을 거쳐서 제정되는 조건에서 국회에서 제정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자유의 법》과 《정부의 법》을 나눌수 없기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구분하여야 하는데 그가운데서 이미 진화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어오던 준칙을 법으로 제정한것이 《자유의 법》이며 정부조직법과 같이 제정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가 국가가 제정함으로써 비로소 등장한 법이 《정부의 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즉 《자유의 법》은 오랜 세월 진화를 통하여 형성되었고 재판의 판결에 의하여 고착된 옳바른 행동에 관한 준칙이라고 볼수 있다는것이다. 반면에 《정부의 법》은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조세법과 같이 정부조직의 운영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정한 법이라는것이다.

《자유의 법》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자생적질서》의 조건들로부터 만들어진것으로서 특정한 인간의 의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이미전부터 존재하여온것이라면 《정부의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한 조직체를 의도적으로 설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으로서 특정한 결과를 목표로 하는 조직의 규칙들은 조직자의 마음이 자의적으로 설계한 발명품이라는 차이가 있다. 하이에크는 두가지 법중에서 《자유의 법》만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좋은 법》이라고 하면서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것은 《자유의 법》을 수호하는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은 원시공동체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갈라져 그들사이에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계급사회로 되면서 착취계급이 피착취근로인민에게 자기의 의사를 강요하고 그에 복종시키는 계급적지배의 수단으로 국가와 함께 발생하였다. 지배계급은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회성원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그들에게 행동준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한다. 국가가 정권을 쥔 계급의 의사를 집대성하여

사회성원들의 행동준칙으로 제시한것이 바로 법이다. 법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의 의사를 반영하여 사람들이 어떤 행동은 하여야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며 이러한 준칙을 어겼을 때에는 국가적제재를 가한다는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법이 《자생적질서》의 조건에서 만들어진것이라고 하여 인간의 의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온것이라고 하는것은 법의 본질과 모순된다.

자본주의사회는 자본가들이 주인노릇을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 만들어진 《자유의 법》은 자본가들의 요구와 리익을 반영한것이다. 그것이 마치도 진화의 과정을 거쳐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는것은 근로대중에 대한 저들의 착취적본성을 가리우려는것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하이에크는 《자유의 법》이 지배적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라는 리상이 활짝 꽃피고 개인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옳바른 행동을 하게 하여 사회에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게 하기때문이라고 설교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법》은 진화에 의하여 형성된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현대《민주국가》의 《자유》를 침해하고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립장에서 하이에크는 국가권력의 강화와 함께 등장한 《법실증주의》를 주장하였다.

《법실증주의》에 따르면 법은 《진화》에 의하여 형성되는것이 아니라 립법자인 국가의 의도적인 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것이다. 이로부터 《법실증주의》는 국가에 의하여 제정되는 《정부의 법》은 설계리론으로 설명할수 있으나 진정한 법인 《자유의 법》은 국가와 상관없이 진화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기때문에 하이에크는 이것이 《법실증주의》의 오류라고 주장하였다.

《진화》의 과정을 거쳐 저절로 형성된 《자생적질서》인 자본주의사회와 그에 고유한 시장경제는 영원하며 《자생적질서》의 조건들로부터 만들어진 《자유의 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리상》이 활짝 꽃피고 개인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이다.

사회제도의 전망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지지를 받는가 못 받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사회와 시장경제는 근로대중의 의사와 리익을 억누르고 침해하는 사회제도로서 그 전망이 없는 사회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유의 법》이라는것은 자본가계급을 위한 법이다. 하이에크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는 착취계급이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할수 있는 《자유》이고 근로인민대중에게 있어서는 헐벗고 굶주릴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사회가 마치도 인류력사에 존재하는 사회들가운데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출현하였기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것은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을 가리우고 《영원성》을 설교하기 위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하이에크는 또한 진화의 과정을 거친 《자생적질서》에 속하는 《자유의 법》에 대한 설교에 기초하여 《시장질서기능》의 우월성에 대하여 설교하였다.

진화의 과정을 거친 《자생적질서》인 시장질서는 기능상 두가지 우월성을 가지고있는데 그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이한 목표를 추구하면서 《평화》롭게 살게 한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수단인 물질적재부들이 다른 그 어느 《경제질서》에서보다 더 풍족하게 생산되도록 한다는것이다.

하이예크는 《시장질서기능》의 우월성의 첫번째 문제에 관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질서와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의 목표가 동일해야 하는데 생의 목표가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목표를 강요하면 《사회의 평화》를 달성할수 없다고 하면서 다양한 목표야말로 문명의 기초이고 공동의 목표를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회주의나 민족주의는 《자유문명》의 최대의 적이라고 하였다.

하이예크는 어떤 조직내에서도 분업은 존재하며 《자생적질서》가 리기심에만 의존하는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중요한것은 시장질서에서는 교환을 통하여 각자의 서로 다른 지식과 목표가 서로 화합하여 공생할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서 각자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발적선택에 따르는 분업과 교환이 발생함으로써 서로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리익을 얻을수 있다고 하였다. 즉 시장경제에서는 서로 목표가 다른것으로 하여 개인들이 리기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들사이에 서로 다른 각이한 지식과 목적이 화합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다른 사람의 목표들이 실현되도록 하기때문에 협동을 방해하고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에게 리익을 주기때문에 시장질서가 전반적으로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더 우월하다고 하였다.

사람들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교환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리익을 얻는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의 기초인 개인리기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사회현실을 변호하기 위한것이다.

하이예크는 시장질서에서 개인들이 각자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할수 있게 하는것은 《교환의 원리》덕분이라고 하였다. 《교환의 원리》라는것은 시장에서 각자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자발적선택에 따르는 분업과 교환이 발생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리익을 얻는것이라는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각이한 목표를 추구하는데로부터 평화롭게 산다는 《시장질서기능》의 우월성에 대한 설교는 개인리기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자본주의사회를 옹호하는 궤변이다.

사회발전은 사회전체 성원들이 하나로 지향된 목표를 가지고 공통된 리해관계에 기초하여 투쟁할 때 이룩될수 있다. 다시말하여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서로 단결할 때 사회발전이 이루어진다. 교환의 원리로부터 매 개인들이 각자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갈수 있다는 하이예크의 주장은 자본주의적착취를 옹호하는 반동적인 리론이다. 자본가는 자본을 리용하여 근로대중을 착취하고 광범한 근로대중은 자본가에게 로동력을 착취당하는 자본주의착취관계를 옹호하는 궤변이 다름아닌 하이예크의 주장이다.

하이예크는 《시장질서기능》의 우월성의 두번째 문제에 관하여 경제 그자체는 결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하면서 시장질서에서는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것이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자원분배의 효율성이 높다는것이다.

그는 시장경제의 자원분배의 효율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정보전달망으로서의 시장》이라는 개념과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정보전달망으로서의 시장》이란 수요와 공급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시장가격이라는 하나의 지표로 종합되어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합리적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것이고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이란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비로소 어떤 생산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발견할수 있다는것이다.

무엇보다먼저 《정보전달망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주장을 내놓고 합리화하였다.

하이에크는 《인간인식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어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인간생활에서 대개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알수 없기때문에 어떤 결과는 사전에 예측할수가 없으며 그 결과는 기대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만 구체적인 사실과 결과를 알수 있다고 하였다.

경제부문에서도 어떤 경제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후에야 알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와는 달리 시장질서에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집약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전달망인 《시장가격기구》가 있다고 하였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가격에는 수요와 공급에 관한 모든 정보가 종합적으로 집약되어 나타난다는것이다. 상품가격이 상승한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들은 여러 요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르면서도 상품가격의 변동만 보고도 자기의 공급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다는것이다. 즉 상품가격의 상승은 공급자들에게는 공급을 증대시키라는 신호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요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가격을 보고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결정할수 있다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가격은 자유시장가격이다.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무정부적인 생산활동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계획화할수 없다. 이러한 무정부적인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한다는것은 생산의 무정부성을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하이에크는 생산에 필요한 요인들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구입하는것도 이 덕분이라는것이다. 기업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보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력대신 기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가장 《경제적인 생산방법》을 택한다는것이다.

이처럼 시장질서는 수많은 정보를 가격으로 집약하여 알려주는 하나의 《정보전달망의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하여 기업과 소비자는 모두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는것을 하이에크는 《가격기구의 신호등기능》이라고 하였다.

《정보전달망으로서의 시장》에 대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파잉생산공황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적인 리론이다.

하이에크가 말한대로 하면 《시장가격기구》에 의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의 파잉으로 인한 경제공황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시장에서의 가격변동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들의 경제활동이 결정된다는 그의 주장은 자본가들에 의한 생산의 무정부성을 비호하려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합리화하였다.

그는 운동경기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의 경제활동도 일종의 경기로서 실지 경쟁을 하는것은 결과를 모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시장경제에서 어떤 생산방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어떤 상품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경쟁을 통하여 비로소 알수 있다고 하였다. 가격에 반영되거나 종합된 정보들의 합계는 전적으로 경쟁의 산물이거나 생산의 요인들

에 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로서 이익을 얻는데 리용될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줄뿐만아니라 그러한 기회가 존재한다는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경쟁은 《발견과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것이다. 시장경기에서의 경쟁적인 노력이 널리 분산된 지식의 활용을 실현시키는것은 이와 같이 정보가 가격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경쟁은 결국 생산자들에게 합리적인 생산활동을 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시작하지만 하이에크는 이것이 원인과 결과를 뒤바꾼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람은 원래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닌데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종종 경제리론에서 합리적행동이 전제로 가정되지만 합리적행동은 경제행동의 전제가 아니라 경쟁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든다는것이 오히려 리론의 기초적내용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로 경쟁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에 의하여 생산되어 현실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수 있도록 한다는것이다.

경쟁에 관하여 하이에크는 시장에서 기업의 수와 상관없이 경쟁의 효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원배분의 효률성이 완전히 달성되는 완전경쟁시장은 두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고 설교하였다.

하나는 완전정보이고 또 하나는 무수한 중소기업이 존재한다는것인데 하이에크는 이러한 조건이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가정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시장질서에서는 경쟁덕분에 현실적으로 가장 효률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이에크는 둘이상의 기업이 존재하면 경쟁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독점시장에서도 경쟁의 효률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독점시장에서는 다른 기업의 진입을 두려워하기때문에 독점기업들은 언제나 판매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것이다. 이 범위에서 다른 기업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데 충분할만큼 가격이 낮아야 한다는 제약을 받으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독점기업으로서 최대리윤을 얻기 위해 가격결정에서 정말 자유롭게 행동할것이라고 설교하였다.

《발견과정으로서의 경쟁》이라는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본주의사회에서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마치 자원배분과 합리적인 가격설정을 위한것으로서 묘사한것이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리윤을 얻기 위하여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적용한다. 결과 생산, 판매 등 여러 부문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이 진행된다. 생산과정에 벌어지는 자본가들사이의 경쟁에는 가격을 통한 경쟁, 더 많은 상품시장과 원료원천지를 둘러싼 경쟁과 함께 여러가지 폭력적수단을 리용한 경쟁들이 있게 된다. 하이에크의 리론은 이러한 자본가들사이의 경쟁을 시장경제에서의 일반상품가격경쟁으로 묘사하여 더 많은 독점적고물리윤을 추구하는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을 가리우려는 목적밑에 조작한 꾀변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시장질서기능》의 우월성에 관한 하이에크의 리론은 자본주의사회의 부패성과 취약성을 가리우고 자본가들의 리윤추구를 위한 착취적본성을 옹호하려는데로부터 나온 반동적인 리론이다.

그 반동성은 첫째로, 자본주의사회의 《영원성》을 설교하고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가리우려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근로대중의 자주적의사와 요구를 억누르고 침해하는 착취사회인 자본주의사회가 마치도 인류력사에 존재하는 사회들가운데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출현하였기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면서 파멸의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사회의 《영원성》을 설교하였다. 그는 시장질서에서 사람들의 목표가 서로 다르기때문에 교환을 통하여 서로 화합하고 리익을 얻는다는 궤변으로 자본주의사회의 기초인 개인리기주의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사회현실을 변호하였다.

그 반동성은 둘째로, 무정부적인 자본주의적생산의 취약성과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을 가리우려는데 있다.

하이에크는 상품가격이 상승한 경우 생산자나 소비자들은 여러 요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르지만 상품가격의 변동만 보고도 자기의 공급과 수요를 합리적으로 결정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즉 상품가격의 상승은 공급자들에게는 공급을 증대시키라는 신호를, 소비자들에게는 수요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내므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은 가격을 보고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결정할수 있다고 설교하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시장가격에 의하여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계획화될수 없다. 리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의 무정부적인 생산활동으로 하여 자본주의사회에서 상품의 생산과 공급은 무정부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무정부적인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따라 규정되는 가격을 보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한다는것은 생산의 무정부성을 가리우기 위한것이다.

이처럼 《시장질서기능》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든 하이에크의 주장은 《자생적질서》라는 비과학적인 개념을 조작해내어 자본주의사회현실과 자본주의적착취관계를 옹호하고 무정부적인 자본주의적생산과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성을 가리우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리론이다.

실마리어 《시장질서기능》, 《진화론적신자유주의》